



그렇다면 '차별'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국어사전이 그리 믿을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때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차별差別: 차가 있게 구별함'. 일반적으로

차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는 단순히 '차가 있게 구별함'에 더하여 '부당하게'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덧붙곤

한다. 차가 있게 구별한다니, 그렇다면 구별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좀 더 뒤져보자. '구별區別: ① 종류에

음. ② 차별을 둠.' 그렇다면 차별이란 차가 있게 차별을 둠(이건 좀 웃기고), 차가 있게 종류에 따라 갈라 놓음,

다. ● 그렇다면 그 '차'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르게 되는 것일까. 대부분은 해계모니를 장악한 이들이 그 기준

이 되어 정상과 비정상을 가 르고, 그 '차'로 인하여 기준미달이거나 예외인 자들을 구별, 차별하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 또한 결국 그 '차'의 강조는 (언젠가 사회심리학 시간에 들었던) '정의내리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것이 되어버

리는 것이다. 아, 물론 지금은 포스트모던한 시대가 되었기에 소수자들 사이에서도 다름, 차이를 말하는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에 다가와서 직

접적으로 상처 입히는 것들은 거대한 권력들의 횡포이다. 물론 그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형태로 작용하는 영리함을 보인다. ● 그러나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의 말대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며 그것은 앞으로 글에서의 전제이기도 하다. 사회문제들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어찌고...라

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꾸해주려나.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것, 즉 그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현재의 상황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현상적인 파악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 브룬쉬비크Brunschvicg는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할 작품'이라고 하였다. 진정 자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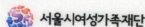
행위는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 반드시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지"라고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4487



석순 20 / 차례

여는 글

정치

상실의 시대,

그러나 위로는 있다 | 석순편집위원회 | 11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확대방안 | 김원홍 | 27

우스워라, '그들의 정치' | 시타 | 43

던힐 한갑,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 | 석순편집위원회 | 53

여성학

고대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며... | 김혜영 | 65

수습

누구의 시선인가 | 고이영주 | 77

공간

현실과 진실,

그리고 침묵 | 석순편집위원회 | 91

마실 인터뷰 | 석순편집위원회 | 103

사진글 | 석순편집위원회 | 110

모성

나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싶다 | 석순편집위원회 | 125

모성 보호?

모성 권리! | 석순편집위원회 | 137

언어

여성의 언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고찰 | 이정은 | 145

남성과 여성의 말

어떻게 다른가 | 민현식 | 157

Do you

Understand me | 석순편집위원회 | 169

남자답게, 그렇게 | 차우진 | 183

성

생선과 자전거 | 석순편집위원회 | 193

평가서

추상을 넘어 구체로! | 배병두 | 211

『석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서금영 | 215